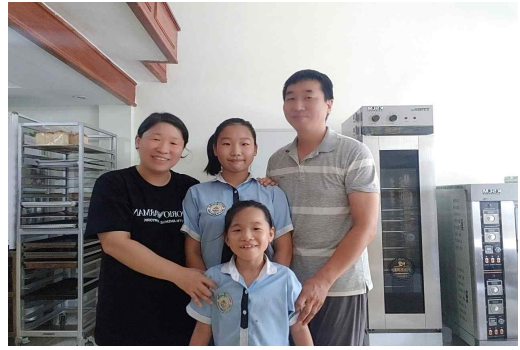


(2021년 10월)

윤성욱 · 김선희(인애,진리)선교사 열여덟번째 기도편지

- 선교사/ 윤성욱 · 김선희 (인애,진리)
- 소속기관/ GMS (총회세계선교회)
- 파송교회/ 부산 서동교회 (김명철 목사)
- 이메일/ 0419217@hanmail.net
- 후원계좌/ KEB하나은행920-982395-409(윤성욱)
- 카카오톡/ y0419217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17)

할렐루야!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

어느 덧 캄보디아는 우기에서 건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저희 가정을 섬겨주시고 이 땅 캄보디아를 향한 귀한 사랑과 기도, 협력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코로나 현황

캄보디아는 9월까지 1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다가 10월부터는 점차 확진자가 줄어서 현재는 1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멈추었던 학교는 11월1일부터 다시 대면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제빵 비지니스 사역(윤 베이커리)

감빵짬으로 사역지를 옮긴지 벌써 1년이 되었고 제빵 사역을 시작한지도 9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도 10월에 1년 재계약 하였습니다.

제빵가게는 아직 순익분기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캄보디아는 수익이 없으면 매년갱신해야하는 사업자등록증과 노동허가서를 받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사업자등록증과 노동허가서 갱신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학교 4학년인 으로왔은 마지막 졸업학기 수업과 제빵가게 일을 병행하며

잘 하고 있고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니는 7월 중순에 섬마을에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고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14일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8월에 한 달간 더 쉬었다가 출근하기를 원해 9월부터 다시 출근하여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직은 두 직원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저희 가정을 통해 그리스의 선한 영향력을 보고 이들도 하나님을 영접 하고 함께 제빵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비즈니스 선교사역도 교회 사역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말라 갈급 하는 영적 부분을 채워주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드리지 않는 것처럼 비즈니스 선교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의 그 시작점은 다르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육적인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 빵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첫 사역이고, 이들이 구입한 빵 포장지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비즈니스 사역을 하면서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 꺼소편과 쯡꺼 섬마을 사역

7월 중순부터 섬마을에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많이 나오기 시작하였지만 9월말부터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지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파송교회(부산서동교회)에서 보내주신 마스크 후원금으로 일반 마스크(50박스)와 알콜(50개)을 구입하여 전도지와 함께 마을 이장님께 전달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섬마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섬마을 사역은 쌀과 생필품을 나누는 구제 사역과 마스크 전도 사역위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꺼소편 초등학교에서 자유롭게 출입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하지만 지난주부터 학교 근처 작은 가게 처마 밑에서 주일마다 아이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빵과 간식을 나눠주며 아이들과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섬마을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는 날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며 기도하면서 마을에서 드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쯡꺼 마을은 우기기간 동안에는 길이 물에 잠겨 고립되고 작은 배를 타고 들어야 하는 섬마을의 가장 끝에 있는 마을입니다. 코로나와 우기로 인해 중단되었던 빵 전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빵과 전도지와 함께 복음이 섬 끝 마을인 쯡꺼 마을까지 전해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알콜 나눔)



(물에 잠긴 쯡꺼마을 가는 길)

◆ 인애와 진리 소식

인애와 진리는 11월 22일부터 세상의 빛 학교에 다시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서는 만6세부터 백신 접종이 의무사항이라 인애와 진리는 코로나 백신 2차까지 무사히 접종을 마쳤습니다. 인애는 학교에서 5학년 홈스쿨링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진리는 오전에는 홈스쿨링 1학년 과정과 오후에는 캄보디아 정규과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리가 캄보디아 수업에 잘 적응하고 캄보디아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학년을 잘 마치고 11월 1일부터 2학년에 올라갑니다.



(인애, 진리 학교 생활)



◆ 기도요청

1. '꺼쑤뻔'섬마을 어린이 예배가 회복되고 섬 끝에 있는 '쯡꺼'마을 빵 전도를 통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2. 제빵가게(윤 베이커리)가 순조롭게 잘 성장하고 함께 일하는 두 직원 파이니와 으로앗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3.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캄보디아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4. 인애의 눈이 많이 나빠져서 프놈펜을 가야 하는데 좋은 병원과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5. 한국에 있는 어머니(정보배권사님)께서 원인을 알 수 없고 치료법이 없는 폐가 굳어가는 병인데 깨끗이 회복시켜주시도록.